진현환 제1차관 “옹벽·사면 등 해빙기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철저” 당부

- 23일 오후 국도48호선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현장 찾아 내실 있는 점검 강조 -

-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23일(금) 오후 3시경 국도48호선 김포 월곶 군하 I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- 국도48호선(편도2차로) 군하 I 절토사면은 1997년 준공되었으며, 길이 205m, 높이 50.5m로 시설물안전법상 제2종시설물로 관리되고 있는 현장으로 해빙기 대비 정밀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다.
- 이번 해빙기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국토부(소속, 산하, 민자) 소관시설 사면·옹벽 등 8,499개소를 대상으로 국토관리청 등 각 관리주체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.
- 점검기간은 2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, 취약 시설물에 대한 붕괴·전도·낙석 등 취약요인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.
- 진 차관은 현장에서 정밀안전점검 진행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“해빙기 지반 약화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절토사면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”을 강조하였다.
- 아울러, 점검결과 긴급 사항은 “관리주체에서 즉시 조치”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“우기 전 조치를 완료하여 선제적인 안전사고 예방”을 당부하였다.

2024. 2. 23.

국토교통부 대변인